

국제결혼 한국남성의 경험에 대한 단일사례 연구

이영희*

요약 본 연구는 국제결혼 한국남성의 경험을 다룬 질적 연구로서 의도적 표집 방법을 통해 참여자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사례모음의 어려움으로 단일사례로 진행하였고, 연구참여자의 지인 및 다문화관련기관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첨가하여 내용의 충실에 기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국제결혼 한국남성은 배우자의 외도나 가출, 도박, 혼외 자녀출생, 배우자의 이혼 요구 등의 피해경험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신체적 이상이나 심리적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제결혼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 유책배우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피해상황에 개입 가능한 체계 마련, 이혼 위기자나 이혼자에게 제공되어야 심리적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국제결혼 한국남성, 경험, 단일사례 연구, 심리적 서비스 지원

1. 서론

우리 사회는 최근 결혼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전지구화 현상으로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약 140만 명(행정안전부, 2012)을 넘으면서 주변에서 외국인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이들과 결합하는 국제결혼을 자연스러운 결혼상황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결혼이란 사전적으로 법적 인정을 통해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 속에는 부부 당사자 개개인의 의무와 책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닌 가정의 중요한 토대이자 나아가 사회적 역

*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yh7085@hanmail.net

할의 중요성까지 강조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가 급변하면서 성의 관념이나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들이 변하고, 인간의 삶에서 중요하게 고려했던 결혼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 가치가 되어가며 과거에는 꺼렸던 이혼 역시 부부가 겪는 갈등과 위기를 해결하는 수단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결혼으로 일부는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온전한 독립적인 성인임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일부는 결혼으로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심리적 위축감이나 소외감을 겪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이주여성들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자살을 하거나 때때로 남편이나 시댁식구들로부터 구타나 무시를 당한 피해사건¹들이 빈번하게 보도되면서 국제결혼 한국남성들이 이주여성들의 삶을 위협하는 가해자로 혹은 한국여성과 결혼할 자격을 갖추진 못한 문제가 있거나 부족한 대상으로 평가절하되는 상황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다문화가정의 부부를 대상으로 수년간 ‘결혼과 가정’이란 주제로 강의를 해 오다가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국남성들과 면담 하는 과정에서 국제결혼으로 인한 어려움과 피해는 이주여성만의 홀로 경험이 아님을 파악하게 되었고 한국남성들이 겪는 갈등과 피해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어보고자 시도하였다. 국제결혼과 관련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이주여성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다루면서 이주여성들의 인권신장 및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부각했듯이 이주여성의 배우자인 한국남성들의 국제결혼 경험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완화 및 사회복지적 개입의 필요성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 가부장적인 권위와 봉건주의적 향수에 젖어있는 한국남성(김문강, 2010)들은 자신이 겪은 피해사실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실제 상황에 대한 정보수집이 어렵고 이들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가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1 남편이나 시댁식구들로부터 심한 구타나 무시를 당하고 한국남성과의 결혼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 후안마이사건, 전탄란 사건, 뚜엣 사건, 초호혼릉영 사건, 탓티항옥 사건 등(이영희, 2010)

본 연구는 국제결혼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남성들의 피해경험을 고찰하여 국제결혼 한국남성에게도 어떠한 실천적·정책적 개입이 필요한지 탐색하고자 한다. 그러나 결혼생활에서 경험한 피해상황 노출을 밝히고자 하는 다수의 사례들을 표집하지 못해 단일사례로 개입한 한계가 있으나 국제결혼의 피해경험은 단일사례 분석으로도 그 의미가 있기에 추후 사례를 추가한 후속 연구로 본 연구의 보족함을 보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제결혼과 관련하여 이주여성들의 피해사건이나 어려움을 주로 다룬 선행연구와는 달리 한국남성들의 피해경험들을 다룬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이론적 고찰

1) 국제결혼 한국남성에 대한 연구동향

한국남성과 한국을 동경하는 동남 아시아계 여성과의 결혼이 빈번해지는 반면 정신 병력이 있는 한국남성에 의해 살해당하는 여성들의 피해 사례²가 속출하면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학계나 관련 연구기관들이 한국사회 및 결혼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표출하면서 인권문제를 다루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매매혼 성격이 강한 국제결혼의 과정(이혜경, 2009; 채옥희·홍달아기, 2008; 한국염, 2009), 결혼중개업자들이 행하는 비리나 부정(설동훈, 2005; 소라미, 2009; 한국염, 2009),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어려움과 갈등(김보라, 2008; 김오남, 2006; 이혜경, 2009; 채옥희·홍달아기, 2008) 나아가 사회통합적 측면까지 다루게 되었다. 즉 인권 피해를 당하는 대상자가 이주여성임에 초점을 두었던 것이고 따라서 국제결혼의 주체자이기도 한 한국남성이 겪는 어려움과 피해상황은 주변으로 다소 밀려나

2 2010년 부산 및 청도에서 베트남 여성이 정신 병력을 가진 남편에게 살해를 당한 사건이 발생함.

있었다(이영희, 2010).

농촌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이 남편의 가부장적 사고방식, 폭력, 술과 도박 등으로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거나(윤형숙, 2003), 이주여성들이 남편의 성격과 폭력에 대해 상담을 원하는(손은록, 2004) 연구 결과들은 결혼 이주여성들의 자살사건이나 폭력 피해 사실들로 일부 확인이 된다. 현재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한국남성이 가하는 알코올, 정신적 및 육체적인 폭력에 대한 피해자이며 인권유린의 대상으로 국제결혼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김문강, 2010). 결혼이주여성들의 피해사실이 알려지면서 결혼이주여성들은 가난하고 남편이나 시댁의 폭력에 시달리는 불쌍한 이미지로 부각되었고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등은 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과 적응을 위한 대책에 몰두하였다. 정부 주도의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제도나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서비스, 글로벌 인재 양성 등이 대표적인 지원프로그램에 해당된다. 물론 이러한 입장은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수용과 통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일조한 면은 있지만 국제결혼 생활 이후 지역사회의 통합주체인 남성들은 철저히 소외시킨 한계(김민경, 2009)가 있다. 이 외에도 광주광역시(2009), 전라남도(2006), 최금해(2005)의 연구에서도 국제결혼 한국남성들은 가정폭력의 가해자(김민경, 2009 재인용)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와 언어가 다른 이주여성과 살고 있는 한국남성 역시 결혼생활에서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직접적인 피해로는 배우자 본국으로의 송금 및 국제전화 과다 사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 아내의 빈번한 가출이나 외도사실을 알고도 결혼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심리적 갈등, 의사소통의 불편함이나 답답함 등이다. 간접적인 피해로는 국제결혼의 피해자가 결혼이민여성이라는 여성주의적 시각 등이 지배적(김민경, 2009)이어서 다문화가정의 해체나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제공자가 한국남성으로 지목되는 점이다. 국제결혼 한국남성들이 주로 무능력한 결혼부적격자이거나 정신병력 등을 가진(성지혜, 1996; 홍기혜, 2000), 부부 갈등의 원인제공자(김오남, 2006; 윤형숙, 2003)나 폭력의

주체(양철호 외 2003; 최금해, 2007)가 되고, 가부장적 태도(홍기혜, 2000)가 강하며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신건강에 손상을 주는(윤영주, 2001) 부정적 이미지가 대부분이다.

최근엔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가 이주여성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남성에게도 발견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나 관심도 필요함을 지적한 연구(김문강, 2010; 김민경, 2009; 이영희, 2010; 최지영, 2009)들이 있다. 이들 연구에는 국제결혼한 한국남성들이 결혼생활에서 경험한 심리적 어려움이나 갈등상황들이 담겨져 있으며 주로 질적연구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는 결혼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이나 심리적 갈등 등이 계량적 수치나 통계로 분석하기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의도적 표본추출로 국제결혼 한국남성들의 피해 경험을 탐색하여 이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국제결혼 부부를 위한 실질적인 개입 및 정책 개발의 근거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국제결혼 및 이혼의 증가

국제결혼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 주둔한 미군남성과 한국 여성과의 결합이 보편적이었던 국제결혼은 1980년대에는 통일교를 통한 일본 여성과의 결혼 유형으로, 1990년 이후에는 중국 조선족과 한족여성과의 결혼 유형으로, 1990년대 말부터는 베트남, 필리핀 등의 동남 아시아계 여성들과의 결혼 유형으로 변화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결혼 유형이 지배적이다. 표 1은 통계청의 혼인·이혼 통계 보고서(2012. 4)에 근거한 외국인과의 혼인 현황에 대한 설명이다.

2011년 외국인과의 혼인은 전체 혼인건수(2만 9천 7백건)의 9.0%를 차지하며 이는 전년도(3만 4천 2백 35건)보다 4천 5백건 감소한 수치이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 중 한국여성과의 외국남성의 혼인(7천 5백건)이 전년도보다 5.8% 정도 감소한 것에 비해 한

국남성과 외국여성의 혼인(2만 2천 3백건)은 15.3%나 감소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과의 혼인비율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남성과 외국 여성과의 결혼(74.8%)은 한국여성과 외국남성과의 결혼(25.2%)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유형은 한국남성과 외국 여성과의 결혼이 주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이 증가하는 만큼 이혼 역시 증가하고 있어 국제결혼의 해체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이다. 이혼은 가정 해체로 이어지면서 이혼자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혼자와 가족 관계로 형성되었던 이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사회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표 2는 통계청의 혼인·이혼 통계 보고자료(2012. 4)에 의한 외국인과의 이혼 현황이다.

외국인과의 이혼구성비는 2011년 기준 전체 이혼 중 10.1%를 차지하며 이는 전년도(9.5%)보다 0.6% 증가한 수치이다. 표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제결혼한 부부들의 이혼률은 2003년 이후 계속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외국 여성과의 이혼(72.6%)이 외국 남성과의 이혼(27.4%)보다 약 2.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외국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들의 가정 해체 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표 1. 외국인과의 혼인

(단위: 건,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혼인건수	318,407	304,877	302,503	308,598	314,304	330,634	343,559	327,715	309,759	326,104	329,087
외국인과의 혼인	14,523	15,202	24,775	34,640	42,356	38,759	37,560	36,204	33,300	34,235	29,762
(총 혼인 중 비중)	(4.6)	(5.0)	(8.2)	(11.2)	(13.5)	(11.7)	(10.9)	(11.0)	(10.8)	(10.5)	(9.0)
증감	2,918	679	9,573	9,865	7,716	-3,597	-1,199	-1,356	-2,904	935	-4,473
증감률	25.1	4.7	63.0	39.8	22.3	-8.5	-3.1	-3.6	-8.0	2.8	-13.1
한국남성+ 외국여성	9,684	10,698	18,750	25,105	30,719	29,665	28,580	28,163	25,142	26,274	22,265
증감률	39.4	10.5	75.3	33.9	22.4	-3.4	-3.7	-1.5	-10.7	4.5	-15.3
한국여성+ 외국남성	4,839	4,504	6,025	9,535	11,637	9,094	8,980	8,041	8,158	7,961	7,497
증감률	3.8	-6.9	33.8	58.3	22.0	-21.9	-1.3	-10.5	1.5	-2.4	-5.8

자료: 2011 혼인 이혼 통계 보도자료, 통계청.

표 2. 외국인과의 이혼

(단위: 건,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이혼건수	134,608	144,910	166,617	138,932	128,035	124,524	124,072	116,535	123,999	116,858	114,284
외국인과의 이혼	1,694	1,744	2,012	3,300	4,171	6,136	8,294	10,980	11,473	11,088	11,495
(총이혼중 비중)	(1.3)	(1.2)	(1.2)	(2.4)	(3.3)	(4.9)	(6.7)	(9.4)	(9.3)	(9.5)	(10.1)
증감	196	50	268	1,288	871	1,965	2,158	2,686	493	-385	407
증감률	13.1	3.0	15.4	64.0	26.4	47.1	35.2	32.4	4.5	-3.4	3.7
한국남성+ 외국여성	387	380	547	1,567	2,382	3,933	5,609	7,901	8,246	7,852	8,349
증감률	56.7	-1.8	43.9	186.5	52	65.1	42.6	40.9	4.4	-4.8	6.3
한국여성+ 외국남성	1,307	1,364	1,465	1,733	1,789	2,203	2,685	3,079	3,227	3,236	3,146
증감률	4.5	4.4	7.4	18.3	3.2	23.1	21.9	14.7	4.8	0.3	-2.8

자료: 2011 혼인 이혼 통계 보도자료, 통계청.

이혼이 쌍방 합의하에 준비된 결정이라면 문제는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한쪽 배우자의 계획적인 의도나 반복적인 실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상대 배우자는 심리적·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혼상황에 있는 한국남성의 사례를 통해 한국남성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제도적 개입은 무엇인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질적 사례연구

본 연구는 국제결혼 한국남성이 국제결혼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례연구(case study)방법을 사용하였다. Stake(2005)는 사례연구가 방법론이 아니라 연구해야 될 것(즉, 경계를 가진 체계 내의 사례)에 대한 선택으로, Yin(2003)은 현상과 맥락의 경계를 명확하게 규정짓기 어려

은 조건이나 현상의 인과관계가 복잡하거나 관계의 과정을 탐색해야 할 때에 적합한 방법론으로, 다른 저자들은 그것을 탐구전략, 방법론, 포괄적인 연구 전략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Denzin & Lincoln, 2005; Merriam, 1988; 조흥식 외, 2005 재인용). 이처럼 사례연구는 어떤 현상이나 경험을 부분들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 안에서 방대하고 다양한 양의 정보를 통합하여 독자들에게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Guba & Lincoln, 1981) 장점이 있다.

Stake(1995)는 사례연구를 사례 분석 목적에 따라 연구자가 하나의 이슈나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나서 이 이슈를 예증하기 위한 하나의 경계를 가진 체계를 선택하는 도구적 사례연구(*instrumental case study*), 하나의 이슈나 관심이 다시 선택되지만 연구자가 그 이슈를 예증하기 위해 다중 사례연구를 선택하는 집합적 사례연구(*collective case study*), 사례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본질적 사례연구(*intrinsic case study*)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남성들의 피해경험을 탐색하여 기술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하며 이는 Stake(1995)가 구분한 사례연구 유형 중 본질적 사례연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사례연구의 특징은 먼저 사례의 현재 경험을 중시하는 ‘현재 지향적’이라는 점이다. 사례의 과거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연구의 초점은 ‘here and now’이다. 둘째, 시간에 걸쳐 자료를 수집한다는 점이다. 사례는 장기간에 걸쳐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긴밀한 관계를 요하며 연구자는 현상이나 상황에 집중하여 사례를 설명하거나 묘사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결과로부터 나오는 이해도는 강력하고 심오하다(신경립 외, 2004 재인용)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제결혼 한국남성의 피해경험을 기술하고자 했으나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참여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단일사례로 접근하였기에 집합 사례연구에 비해 사례 간 비교나 일반화 등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례관리자, 참여자의 동료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가 피해 한국남성들이 겪는 내용임을 확인한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사례의 독특성을 강조하며 사례 자체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사례의 일반화(generalization)가 아닌 사례의 특수화(particularization)가 목적이 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자의 연구주제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유용하므로 국제결혼을 통해 피해를 경험한 한국남성이 그 대상이 된다. 연구자가 본 연구를 위해 적합한 대상을 탐색하던 중에 다문화기관 관계자로부터 배우자의 외도와 일탈행동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대상을 추천받게 되었고 그 대상이 연구참여자 L씨이다. L씨는 연구자가 경북지역 소재 G시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국제결혼 부부를 대상으로 강의한 ‘결혼과 가족’ 프로그램에 일정기간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참여자 L씨가 임원으로 활동하는 다문화가정 부부 모임에서 연구자가 일정기간 자문인의 역할을 맡으면서 약간의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사례이다. L씨는 자신이 결혼생활에서 겪고 있던 고민을 연구자와 나눌까 망설이던 상황이어서 L씨에 대한 자료수집이 비교적 용이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참여자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 담당자, 일부 참여만 원한 연구참여자의 친구인 동료로부터 제공되었으며 2013년 1월부터 2월까지 진행하였다. 면담장소는 연구참여자나 참여자의 동료는 연구참여자의 가정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정하였으며, 면담의 횟수는 연구참여자는 3회, 기타 참여자는 1회 정도로 진행되었다. 자료분석은 먼저 면담 후 내용을 먼저 필사하여 이후 내용들을 반복해서 읽으며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진술문과 현장 노트를 중심으로 반복되는 주제와 내용들을 구분하여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피해경험들을 도출하였다.

3) 연구의 질 검증과 윤리적 이슈

질적 연구의 질 검증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원화의 방법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자, 연구참여자의 동료들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통합하는 한편 필사한 진술내용, 현장노트 등을 활용하며 진실성 확보에 노력하였고, 윤리적 이슈들을 고려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한 소개 및 활용 목적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제공된 정보에는 연구 참여 진행 및 철회에 대한 결정권, 내용 확인을 할 수 있는 연구 참여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사생활 침입 보장권 등이 참여자의 권한임을 확인시켰으며 충실한 정보 협조를 위해 연구 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금을 제공하였다.

4. 연구결과

1) 연구참여자에 대한 일반적 정보

(1) 주요 정보 제공자 L씨

나이는 45세, 미술대학을 졸업하였으나 현재는 자동차 정비를 하고 있다. 3남 1녀 중 2남이며 종교는 천주교이다. 30대 초반에 한국여성과 결혼을 한 적 있으므로 배우자와는 재혼관계이다. 지인의 소개로 베트남 여성인 배우자를 만났고 1개월 정도 화상채팅을 한 후 2006년 9월에 결혼을 하였다. 결혼기간은 6년 8개월 정도이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1남 1녀를 두었다. 현재 혈액형 감별로 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막내(남아 2세)는 베트남 처가에서, 친자로 인정하는 맏이(여아 6세)는 L씨가 양육하고 있다. 현재 배우자의 잦은 외도 및 자녀 출생에 의혹이 생겨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자

나이는 42세, 여성이며 행정 공무원을 지낸 경력이 있고 다문화관련 업무 경험은 5년 정도이다. 주로 자신이 담당한 위기사례 및 한국남성들이 겪는 피해 상황 그리고 L씨의 학습참여 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3) L씨의 동료

나이는 44세, 남성이며 자동차 관련학과를 졸업하였으며 L씨와 같이 근무하고 있다. 결혼 중계업자를 통해 베트남 여성(현재 33세)과 5년 전에 결혼을 하였으며 1남(4세)을 두고 있다. L씨보다 먼저 정비공장에 입사하였으며 L씨와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이다. L씨가 겪는 어려움을 알고 있으며 L씨의 건강을 염려하고 있다. 연구자에게 L씨의 결혼생활에 대한 일부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2) L씨 이야기

어릴 때부터 회화에 재능이 있어 미술대학에 입학하였고 국선에도 여러 번 입선한 경력이 있다.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3년 정도 학원에서 강사 생활을 했다. 그 당시 수강생이던 여대생과 결혼하기로 하였으나 직장이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반대하던 여성의 부모님을 설득하지 못해 헤어졌다. 이후 형제의 도움을 받아 미술학원을 운영했으나 IMF 위기에 경영이 어려워 문을 닫았고 이후 자동차학원에서 정비기술을 배워 지금의 정비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친구의 소개로 옷가게를 운영하는 여성을 만나 결혼을 했으나 배우자가 아침 식사준비나 가사 일을 노골적으로 싫어해 자주 다투게 되었고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헤어졌다.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라 법적인 절차 없이 쉽게 헤어졌다. 재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은 많지 않았으나 부모님의 재촉으로 선을 몇 번 보았다. 그러나 선을 본 대부분의 여성들이 중매장이를 통해 선을 보아서인지 조건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 일부는 L씨가 다른 업종으

로 직업 변경을 하거나 여성 앞으로 아파트 명의이전 등을 해 주길 원했고, 심지어는 수입이 있는 통장관리를 요구하였다. L씨는 조건을 우선시하는 여성들을 믿을 수 없었기에 불안한 마음으로 결혼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재혼을 하지 않았다.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 재혼에 대한 생각을 거의 접을 즈음 베트남 여성과 결혼생활을 하고 있던 L씨의 친구가 자신처럼 국제결혼을 해 보는 것이 어떠냐고 권했었고 친구 아내의 소개로 현재 별거하고 있는 아내를 만났다. 화상 채팅으로 몇 번 얼굴을 익혔고 성격은 있어 보였지만 ‘컴퓨터 화면 영향이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한 달 정도 컴퓨터로 교제를 하였다. 부모님들과 형제들이 처음엔 반대를 하였지만 TV 등을 통해 잘 살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들이 있음을 알고 동의를 하였다.

결혼 초기에 아내와 대화하는 것에 불편함은 있었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이 있었고 아내 역시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려는 노력을 보여 L씨는 교육비를 부담하면서도 아내의 한국어 습득에 도움을 주었다. L씨는 한국에 살고 있는 자신보다도 타국에서 온 아내가 한국 생활 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귀가 시간이 늦지 않으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했고 무료함이 있을 것 같아 가끔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배려를 하였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 아내는 암전하고 자기 잘못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국적 취득 후 아내의 태도는 달라졌고 유책 배우자임에도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아내가 처음 가출했을 때, 한국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랬다는 말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두 번째 가출은 친정어머니가 위급하다며 베트남으로 간 줄 알았던 아내가 차일피일 돌아오는 것을 미루어 여러 가지 추측과 의심이 생기던 상황에 지인의 정보로 아내가 공단 주변에 살고 있던 베트남 남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아내의 가출 사실을 본가나 이웃이 알까봐 L씨는 가슴 졸였고 이혼이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거나 자신 역시 손가락질 대상이 될까봐 참았다. 그러나 이유도 모르는 배우자의 3번째 가출이 있었고 둘째 아이의 혈액행이 이들 부부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난 후, 이혼에 대한 고민을 하

고 있다.

3) L씨의 피해경험

L씨가 아내와의 결혼생활에서 겪은 피해는 다양하다. 진술을 통해서 정리된 내용은 반복적인 외도성 가출, 혼외 출산과 양육, 대가를 요구하는 잠자리, 도벽, 이혼 요구 등으로 구분된다.

(1) 반복적인 외도성 가출

먼저 아내의 반복적인 외도성 가출에 대한 L씨의 진술이다. 아내가 가진 문제로 지적되는 가출 사건은 결혼생활 6년 동안 세 번 정도였는데 가출상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외로워 나갔다고 한 1차 가출(2007년 10월)

첫 아 놓고니까 한 2년 됐겠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집사람이 없었어요. 좀 늦나? 생각했는데 10시가 넘어도 연락이 안되요. 아는 친구인데 물었더니 못봤다는 거라. 혹시 어디 끌려갔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 걱정하고 있는데 한 시 넘어가 아는 언니집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거(그곳)가 창원인데 왜 갔나고 물었더니 한국생활이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부모님도 보고 싶고 그래서 잠깐 나왔는데 아는 언니를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거(창원)까지 갔고 시간이 그리 됐대요. 연락을 할라 했는데 бат데리가 다 나가가 연락을 못했대요. 그때는 그걸 진짜라고 믿었지. 그럴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했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주여성들의 가출은 결혼 초기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며 가출 경력이 있는 이주여성 대부분은 가정에 충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혼생활도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고 한다. 이는 이주여성들의 가출에 대해 적절한 초기 대응이 필요함을 알 수 있

다. L씨도 아내의 초기 가출을 단순하게 모국에 대한 향수나 외로움으로 인한 것이라 생각하고 가볍게 넘어갔지만 그것을 시작으로 아내의 가출은 이유도 다양하고 가출기간도 길어졌으며 결국 가정해체를 해야 하는 위기를 맞게 된다. 대부분의 한국남성들은 외국인 아내가 겪을 어려움을 추측하고 이해하려 하지만 상담이나 치료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흐르는 시간에 맡기는 소극적인 대처에 익숙하다.

② 생활비 통장을 들고 나간 2차 가출(2009년 5월)

이거는 뭐 주기적으로 발동하는 거라. <중략> 그 때는 둘째 아 가졌을 땐 가 그래요. <중략> 2008년 말 정도지 싫어요. 크게는 그런 거고 사소하게 내가 모르는 것도 많을끼라. <중략>공장에서 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울면서 뛰 오더라꼬. 나는 아(아이)가 무슨 일이 생겼나 싫어가 켜디 저거 엄마(장모)가 클 낫다 카더라꼬. 숨도 못 쉬고 위급하다 카더라꼬. 곧 죽을라 칸다고. 침에는 너무 심각하다카이 나도 가야 되는 거 아인가 그래 생각했지. 근데 공장에 일손도 바쁘고 갈 상황이 안되더라고, 그래가 아 어마이(집사람)를 혼자 안보냈는교. 지보고 혼자 갈 수 있나 카이 지 혼자 갈수 있다카이 그라데. <중략> 가자마자 연락하라 켜는데 ... 침에는 도착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오디, 곧 온다 온다 카디 보름이 거의 다 됐어요. 나는 그 때 통장이 없어진지도 몰랐어. 근데 세금 낼라고 생활비 통장을 찾아보이 없어, 도장도 없고. <중략> 참 황당하데. 암만 찾아도 없는 거라. 돈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한 삼백정도 있었나? 올 때는 당연 깡통이지. 아차 싶었지. 혹시 이 사람이 또 집 나갔나? 큰 아(아이)만 나두고 가가 아(아이)는 어무이가 키우고 있었는데 걱정해가 자꾸 전화해보라 캐도, 저거 엄마 아파가 갔는데 오는 게 쉽겠나. 그래 말했는데 실 걱정이 안되는교. 근데 고때(그당시) 누가 전화가 왔더라고, 창원서 집 사람을 봤다고, 그래가 안 갔는교, 떡 가이 참, 내 그때 생각만 하며 도는구마. 끼리끼리 놀고 지랄들 하고. <중략> 끌고 왔지. 되는교, 성질나가 때렸지. 나는 원래 손 대거나 그런걸 안하누마. 근데

아(아이) 배가 그 지랄하는게 미친 거지, 정상인교, <중략> 죽이뿌고 그 때 끝내야 되는데, <중략> 그 때는 거기 어렵더라고. 당장 아도 있고(배 속에), 큰 아도 어디(유치원, 어린이 집) 다녀야되는데 엄마 없으면 좀 안그런교. 지도 우예하다보이(베트남에서 돌아올 때 공장에 다니는 베트남 친구를 만났는데 혹시 취업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구경갔다가 그리 되었다고 말했다고 함) 돌아올 시간도 늦쳤고, 돈도 다 써버려 무서워서 그랬다카이 우야노, 그래가 또 넘어갔지.

이주여성들에게 폭력과 폭언(윤형숙, 2003)을 하고, 술과 외도 등의 문제(손은록, 2004)로 상처를 주는 한국남성의 문제행동은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주여성의 문제행동은 곧바로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분노의 표출 방법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으로 여성들이 자신들보다는 신체적 힘이 약하다는 것을 잠재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폭력에 의한 대처는 상대를 일시에 제압하거나 잘못을 시인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하지만 부부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멀어지게 되거나 다시 가출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되기도 한다.

③ 베트남 남자와 동거를 한 3차 가출(2012년 10월)

잠잠하다 싶디 또 나갔어요. 이번에는 기가 막히는구마. 내를 갖고 논다이 인교. <중략> 원래 가들이 잘할 때는 잘하는마. 좀 그런 거는 있어도(성질나면 덤비고 소리치는 것) 살살거릴 때는 잘 살살거리누마. <중략> 아가 배고프다고 울어노이 옆집 아주무이가 전화를 했어요. 아 엄마 없냐고 물으니 없다 카드라고. 전화를 해도 안 받아가 집에 와가 보이 휴대폰을 놔두고 갔어. 참 내. 휴대폰 문자가 베트남말로 된 게 있는데 <중략> 침에 나는 저거 이모하고 문자한다 카길래 나는 또 그런 줄 알았지. 저거 엄마가 아파노이 소식 전해준다 카대. 그런가했지. <중략>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그런 짓 하는 줄

은 몰랐지요. 뭐 잠자리 할 때도 지랑 내라 안 맞는 것도 아니고 <중략> 다른 놈들하고 문자질 하고 그라는 줄은 몰랐구마. 근데 연락도 안되고 찾을 길이 없이 센터에 가가 문자 확인 좀 해도 안됐는교, 이런 일이 생기면 솔직히 갈 때가 있어야제. 카니까 첨에는 망설이더라고. 내가 남편인데 알아야 안되는 교 됐더니 그제서야 말하는데 내가 참...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녀가 가정을 유지해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때때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그러나 배우자의 외도와 같이 개인의 자존심과 연관성이 있을 경우엔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으며 남성의 경우는 더 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이주여성들이 한국남성 배우자에게 당하는 어려움들이 사회에 알려지면서 국제결혼 한국남성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인 경향이 많아 국제결혼 한국남성들은 자신들이 오히려 “사회적 소수자, 피해자”라는 신세한탄을 하며 결혼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노출하지 않으려 한다. 설령 이들이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더라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거의 없다. 이주여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용하는 1366은 이주여성들의 고충을 우선으로 하므로 남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경우도 사전 이용 경험이 있을 경우이며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는 도움을 요청할 곳은 전무하다.

언제 나오나. 어디로. 내가 옆에 있나 없나. 중간 중간에 보고 싶다. 사랑한다 뭐 저질 같은 문자도 있고, 뭐 그런 거지 뭐겠는교. 센터하고 수소문 해가 어디 있는지 안 알아냈는교. 저거끼리는 다 통하고 다 알고 있어요. 알아도 안 카고 있다가 문제가 커져가 험박하듯이 강하게 이야기하면 불어요. 그때도 저거끼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하여튼 알아가 가이까네(찾아가니) 저거 놈(베트남)하고 살고 아있는교.

여성들의 외도와 관련한 문제는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님을 다문화가족지

원센터 관계자와의 면담에서도 확인이 된다.

남자들은 이주여성들이 집단으로 모이고 하는 것을 싫어하죠. 가출하는 대부분이 혼자나 가지 않아요. 연락망이 있어서 서로 서로 연락하고 같이 나가요. 우리만 알고 쉬쉬하는 케이스가 몇 개 더 있어요. 남편들이 부탁을 해요. 모르게 해 달라고. 이런 업무를 하다보면 불쌍하다 싶은 남자들이 많아요. <중략> 여자들이 문제예요. 여자들 문제들(도박, 외도)³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도 어찌지를 못해요.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차라리 살 것 같으면 모르고 사는 게 편하잖아요. 우리는 어쨌거나 둘이 잘 살았으면 하고 바라는 거죠. 현재로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대부분 이주여성들이 혼자 무작정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연락을 받고 집단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면 이주여성들의 가출 뒤에는 보이지 않는 조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가출한 이주여성들을 찾기는 쉽지 않다. 국제결혼 한국남성들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그런 조직을 점조직이라 한다. 이런 점조직망은 이주여성들이 입국하기 전후에 왕언니⁴를 통해 서로의 연락망을 교환하며 한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이러한 조직망이 이주여성 가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일부 한국남성들은 이주여성들의 교육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다.

연구사례와 같은 이주여성의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배우자인 한국남성도,

-
-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에 의하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의 없는 농촌 지역과 달리 대중교통 수단 이용이 비교적 용이한 도시지역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공단 인근 지역에서는 이주여성들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L씨와 유사하게 한국에서 본국의 남자와 이주생활을 하다가 발각된 사례도 있고, 언니의 주민증을 위조하여 나이와 신분을 속이고 결혼했다가 신분을 밝히며 한국에 온지 한 달 만에 본국으로 출국한 사례, 미혼이라고 결혼했다가 자녀를 낳듯이 동생으로 위장하여 한국에 입국시킨 사례, 귀환 후 본국의 애인을 데려와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 등 표면화되지 않은 다문화가정 위기 사례는 다양하다.
 - 4 한국남성과 결혼해 한국에 정착한 이주여성으로 한국 지리나 물정에 밝으며,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생활 적응방식이나 대처 행동요령 등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

다문화관련 관계자들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대부분은 병어리 냉가슴 앓듯 덮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는 이미 국제결혼 한국남성들이 국내결혼에 대한 장벽을 넘지 못한 아픈 경험이 있고 차선의 선택으로 외국여성과 결혼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국제결혼 한국남성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2) 혼외 출산과 양육

L씨는 여러 번 아내의 가출을 경험하면서 국제결혼을 한 것에 후회하고 회의를 가지기도 했다. 그러나 아내의 가출이 결혼생활이 힘들어서 일시적으로 행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남성과의 관계로 인한 외도성 가출인 것을 알았기에 마음의 상처는 더 컸다. L씨의 아내는 외도성 가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둘째 아이를 출산했고, L씨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자신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하고 4년 동안 키우고 있었다.

첫째는 딸이라 그랬는데 둘째는 아들을 놓으니까 어무이가 좋아했심더. 그래가 잔치도 크게 하고 온 사람 다 불러가 동네잔치 안했는교. 친척들도 다 불러가 그래안했는교. 나도 아무래도 아들이 더 좋지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남성들은 ‘자식이 있으니 가정의 결속력이 더 단단해질 것’이라 믿는다. 특히 배우자가 남아를 출산했을 때에는 부모에게 손주를 안겨준 자식의 역할 및 남성 본인의 역할을 했다는 안도감을 갖는다. 또한 국제결혼 한국남성들이 외국여성과 국내에서 결혼식을 할 때에는 하객들에게 ‘결혼 생활이 잘 지속될까’라는 의문과 불안감을 도전받지만 자녀 출산의 경우에는 ‘결혼 생활을 대체로 잘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무언의 인정을 받기 때문에 결혼식과 달리 자녀의 첫 생일잔치에는 많은 축하객을 모은다.

근데 나는 가가 내 아(아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못했구마. 아(아이)가 안

다쳤으면 아이(지금까지)도 모르지 우예 알겠는교. 우리가 혈액형 검사 할 일이 뭐가 있는교. 지(아내)도 누군지 몰라요(아이의 아버지를 말함). 말해라 카이 모른다 카는데 뭐, 남의 아들 내 안 줄 알고 4년을 키웠구마. 정도 들었지만 내 새끼가 아인데 우예 키우는교, 어무이는 내 속도 모르고 보고 싶다고 자꾸 아(둘째아이)라도 데리고 오라 카는데, 내가 죽을 지경이구마. 아가 얼마 전에 자동차에 치가 병원에서 검사를 안 받았는교. 머리 다쳤는가 싶어가 피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안 했는교. 아 검사한 걸 보니 나는 B형이고 아 어마이는 0형인데 아가 A형 아인교. 자가 누 닳았노 그런 생각을 안 한건 아인데 저거 어머니 외탁했는갑다 그랬지, 누가 내 새끼 아인걸 우예 생각이나 했겠는교. 지금 심정 같으면 꽤 죽이고 싶지 뭐, 손해배상에 위자료청구까지 하고 싶은데 뭐가 있어야 말이제. 그놈아랑 잘 살 것처럼 지랄하디 지금은 지도 버림 받고 혼자 아인교. 거(베트남) 아들이 그리 무식하고 생각이 짧구마.

L씨가 당한 위의 상황은 다문화업무 관련자라면 누구나 경험한 적이 있는 보편적 사례라고 한다.

그리 놀랄 일도 아니예요. 물론 잘 살고 있는 아들도 많아요. 시부모 공양하고 일 거들며 사는 그런 아들도 많지만 특히 공단근처는 심해요. 공단에는 노동자들이 많아노이 저거들 끼리 연락을 해요. <중략> 아들(결혼이주여성)이 주말만 되면 같이 모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아까지 업고 나가가 그란다니까요. 저거 끼리 말이 다 나와요. 일러 준다니까요. 선생님, 누가 누가 언제 뭐를 했는지 슬쩍 일러주고 그래가 알게 되면 저거끼리 머리 터지도록 싸우고, 우리가 보면 기도 안차는 일이 많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공단 지역 부근은 이주여성들에게는 고국의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된다. 이 만남의 장은 구체적인

지리적 공간으로 고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주여성들이 같은 고국의 사람을 만나 향수를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거나 타국에서의 힘든 감정들을 공유하는 장소로 활용이 된다. 그러나 때때로 외도와 같은 이주여성들의 일탈행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주여성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분쟁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3) 대가를 요구하는 잠자리

아내에게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사건들이 있었다. 잠자리에서 자주 돈을 요구한 사건이다. L씨는 아내가 성관계를 할 때 웃으며 돈을 요구했는데 처음에는 장난삼아 하는 것이라 가볍게 지나쳤다고 한다. 물론 아내의 그런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런 행동은 아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거나 아이들을 위해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사소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지금 생각하이 그게 다 계획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떨 때는 내가 좀 하자 그러면 싫다고 그래요. 근데 어떨 때는 지가 더 그래요. <중략> 근데 잘 해주면 용돈 달라고 잘 보이고 싶은데 웃이나 뭐, 베트남 여자들은 보통 향수나 금 같은 귀금속을 좋아해요. 그런 거 한 개 사고 싶다고. 샴들이 많아가 자기네끼리 모이면 자랑도 많이 하고 그래요. 남자들이 다 그래요. 보통은 여자 좋아하고 노래방가면 여자들 불러가 놀고, <중략> 나는 그런 걸 그리 안좋아해요. 그래도 집사람하고는 막말로 내꺼 아인교. 결혼은 왜 하고, 정이 영 없는 것도 아이고 맞은이 자주(성생활) 했어요. 그런데 이기 한 번씩 돈을 달라고 그래요. 어떤 때는 먼저 달라고 하고(관계를 하기 전) 어떤 때는 내가 기분 좋아하면(관계 후) 달라고 합니다. 나는 지가 돈이 필요한가보다. 뭘 사고 싶은 물건이 있구나. 그리고 한 번씩 친정에 돈 보내야 되는데 조금씩 모아가 보낼 거라고. 자주 그랬으니까 <중략> 부부간에는 그런 거래를 하는 사이가 아니라고 설명도 해 주면서 줬어요. 돈은 대중 없는데 그렇다고 많이 준 거는 아닌데 5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 물건을 하나 사도 그 정도는

돼야 되니까. <중략> 계산은 안 해봤는데 좀 뻘짓 싶어요. 모르겠어요, 얼마지.

성과 관련한 문제는 부부 모두에게 교육이 필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L씨는 아내와의 성생활에서 아내가 요구하는 돈을 일부 지급을 하고 아내의 명칭을 “이거”(일반적으로는 물건을 지칭하는 대명사임), “내거”라는 표현을 했다. 이 부분은 L씨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는 국제결혼의 상업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물론 베트남 국가는 공식적으로 지침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적인 부부생활에서 오고간 금전적 거래는 이 부부의 관계가 중속적임을 암시하며 남성은 동조 행위를 통해 아내의 금전 거래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한다.

상담을 요청해요. 그런데 나도 민망해요. 들어보면 서로가 문제인 것 같아요. 남자들은 내거라는 생각이 강해요. 아무래도 결혼하기 전에 그런 욕구들이 충족이 잘 안됐으니 결혼하고 그걸 할라 카는데 여자들은 아직 어리니까 그런 게 그래 잘 안되잖아요. 어떤 집은 씻지도 안하고 좀 저급하게 할라 카고, 남자들이. 그러이 그런 걸 여자들은 싫어하지, 당연히 <중략> 이 집은 그런 문제는 없는데. 이 집은 여자가 문제지, 남자는 별 문제없어요. 몇 번 문제가 있다고(여자배우자) 점 찍은 집이에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유교사상에 익숙한 우리 사회에 성에 관한 이야기는 드러내서 표현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성과 관련한 사회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정부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성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진 은밀한 행위로 인식된다. 그래서 성에 관한 고민이 있는 남성들은 면담을 통해서보다는 전화를 이용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에게 성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고 있다. 그러나 센터의 관계자들은 성에 대한 전문적 상담을 한 경험이 없으므로 이런 사례가 접수되면 난감해 한다. 따라서 부부생활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 예절과 함께 성과 관련한 전문적인 상담 및 조언을 받

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 도벽

L씨의 아내는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인지 문제성 습관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상습적인 도벽 증상이 있었다. L씨의 지갑에서 반복적으로 몰래 돈을 빼내거나 하는 행동들이 진술내용에서 확인된다.

나는 전에는 술도 그리 안했고 담배도 안했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실수를 잘 안합니다. 그리고 내 지갑에 돈이 얼마 정도 있는지 집에 생활비는 얼마 정도 있겠다 그런 정도는 거의 압니다. 내 소득이 그리 안 많고, 요즘 차 수리 경기도 별로 안 좋아요. <중략> 나가는 것은 일정한데 소득이 줄면 아무래도 안 힘든교. 그라이 좀 아끼라는 말도 자주하고 아도 둘이니까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중략>

국제결혼 한국남성들의 경우 맞벌이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배우자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낮아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취업을 해도 배우자의 소득은 주로 처가로 보내지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남성들은 배우자의 취업에 그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아내가 취업을 통해 다른 남성들을 알게 되고 자신을 다른 남성과 비교되어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참여자는 자신의 근면성과 계획성을 장점으로 강조하며 자신이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표출한다. 그러면서 배우자의 단점으로 한국형 경제적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아내의 소비행동에 불만을 표출한다.

뭐 분명히 만원짜리 5장 있는 걸 봤는데 1장이 없어요. 암만 생각해도 나간 데도 없고 썼는데도 없어. 그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라. 그러이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보이(보니까) 지(아내)도 탐낼 거 아인교. 집에 들어올 때는 돈을 아예 차에 넣어 두고 와요. 차가 나요(안전해요). 입금해야 될 것도 있고

회사에 넣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괜히 잃어버리면 내만 손해고, 자꾸 의심해야 되고. 한번은 씻으라고 하다가 돈을 세어 뒀는데 지가 모르고 손을 댔어. 내가 씻고 나와가 돈 내놔라고 하니까 첨에는 딱 잡아 떠다가 내가 돈에 표시해뒀다 켜지. 그라이 아 간식 살라고, 고생하는데 미안해가 그랬다고,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인데도 지도 한국 생활을 알고 세상 물정을 알면 나아지겠거니 그래 생각 안했는교.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비욕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L씨의 아내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 금액만 남편에게 받았기 때문에 여윌돈이 없었고 필요한 금전을 가지는 가장 쉬운 방법이 남편의 지갑에 손을 대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남편에게 아내에 대한 불신감과 함께 지갑을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L씨의 아내에게도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5) 소식 끊긴 채 이혼을 요구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남편의 협조와 배려가 전적으로 필요하다. 언어를 배우기 위해 다문화 기관을 이용하는 것에서부터 경제적 도움, 지역사회의 적응에까지 남편의 도움이 없이는 한국생활이 어렵다. 그러나 일정기간이 지나 한국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외국인신분에서 벗어나 이동이 자유로워지게 되면 L씨의 배우자처럼 다른 남성(베트남)과 동거하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여성도 있다.

죽을 죄는 지가 지고, 싹싹 빌어도 내가 살까 말까데,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내 참, 지가 이혼하자고 덤비니 이기 말이 됩니까. 내가 미치지... 죽을 맛입니더. 외국인등록증으로 판 사람들은 그래 했다 카든데(니 내가 안 찍어주면 여 못산다, 그러니 잘 보이라는 식) 나는 지인데 그래 안 했심더, 내가 지(배우자)를 사람이라 보고, <중략> 갈 사람은 이래도 가고 저래도 안

갑니까. <중략> 내 없어도 지가 여(한국) 살 수 있다고 생각하이 저 XX하는
거지. <중략>

국적취득은 이주여성과 배우자인 한국남성의 위치 변화에 중요기제로 작동된다. 국적을 취득하기 전 이주여성들이 신분의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남편에게 의지해야 하는⁵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지만 국적 취득 후에는 한국어 구사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게 되고 신분의 안정성도 확보되므로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하게 된다. 반면에 남편들은 체류와 관련한 힘을 상실하게 되고 가정의 주결정권자로서의 역할도 약화되는 것을 경험한다. L씨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의 문제행동의 유무를 떠나 국적취득 후 당당해진 아내의 행동은 배신행위이다. 다른 한국남성들이 배우자에게 신분보장의 권력을 휘두르는 동안 자신은 그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적 취득이 이렇게 미묘한 신분이동을 만들어내므로 국제결혼 한국남성들이 배우자의 국적취득을 적당히 미루거나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려는지도 모른다.⁶

지금 기다리고 안 있는교. 지가 소식 와야지 내가 어디 가가 지를 찾는교,
인자는 못 찾누마, 나도 지쳤고 인자 내가 애씨가 찾을 필요도 없고, <중략>
일하다가 때리 치우고 저저 나라 가는교, 가며 간다 해도 말도 안 통하고.

국내결혼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국적을 취득한 이주여성이 의도성을 갖고
행방불명이 되면 이주여성 스스로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 한 배우자를 찾을

5 이주여성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과정을 거치므로 긴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남편의 재산증빙(3000만원 이상)과 남편의 보증이 있어야 하며 1년마다 갱신하는 비자 신청권도 남편에게 있다. 그리고 국적 취득 전에 이혼을 하게 되면 이주여성은 체류자격이 박탈된다.(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6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은 22만 6000여명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숫자는 7만 6473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국적 취득 절차상의 어려움도 있지만 남편들의 수동적인 태도와도 상관이 있다.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경찰서와 같은 공공기관에 신고라도 할 수 있지만 국외로 나간 경우에는 처가를 찾아가기도 어렵고 설사 찾아간다 해도 배우자 언어로 소통이 어려워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기다려야만 한다.

4) 다양한 스트레스 증상

개인의 정신건강과 결혼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만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서적인 지지와 안정감, 애정, 사랑,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 등의 동기로 작용하면서 결혼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이영호, 2011)는 사실은 일부 공감되는 내용이다. L씨는 6년 동안 아내와의 결혼생활에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유지해 오면서 가족 내에서도 지역사회 내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나 인정을 받았던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가출한 아내를 찾기 위해 아내의 지인들과 다문화센터 등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아내의 반복적인 외도 사실이 알려졌고 특히 자신의 핏줄로 귀하게 생각했던 둘째아이가 친자가 아닌 것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 자신의 의지로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L씨는 스트레스로 인해 다양한 증상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신체적·심리적 반응들로 알 수 있으며 L씨와 L씨 직장 동료에게서 녹취한 진술, 신체증상 확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1) 신체적 증상

연구자와 면담할 당시 L씨의 두피는 각질현상이 심했고 곳곳에 붉은 반점이 있었다. L씨는 가려운지 머리를 자주 긁었고, 그럴 때마다 푸른색 작업복 어깨 위에는 하얀 두피 각질이 떨어졌다. 정수리에는 엄지손톱 크기만큼의 원형 탈모가 진행 중이었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였다. 팔과 등 뒤에도 반점 형태의 검은 얼룩점들이 일부는 딱지가 붙어 있고 일부는 딱지가 떨어진 채로 퍼져 있었다.

① 피부 질환 및 원형 탈모

온 몸에 반점이 생겼어요. 여기 보면 탈모가 있지요, 우리 집에는 피부로 이러는 사람도 없고 대머리는 조상 대대로 없어요. 내가 이 일(자동차 정비)을 한 게 10년이 넘었어요. 한 15년 되제. 병원에 갔더니 일하고는 별 상관인 없는데 최근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냐고 물었어요.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이 일(아내와의 관계)말고는 크게 없어요.

② 높은 혈압 수치

나는 원래 혈압이 정상입니다. 80에 120, 130 정도, 혈압에 문제있다는 소리를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새 술도 마시고 담배도 배워가 그런지 혈압이 높아요. 얼마 전에 피부 때문에 몇 번 병원에 갔는데 혈압이 높고 카더라고. <중략> 아무래도 표가 안 나겠는교, 내가 일하다가도 답답해가 심장에 손을 얹으면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지금도 나는 가슴이 답답해요.

③ 잦은 음주와 비규칙적인 식사

이 친구가 원래 술을 잘 못해요. 회식해도 두 세 잔정도 먹으면 술이 안받는가 잘 안마셔요. 그래가 우리도 잘 안 권해요. 못 먹는 사람 죽일 일 있나 안 권해요. 그런데 요새는 걸핏하면 밥도 잘 안 먹고 대낮부터 맥주 마시고 소주도 마시고 그래요. 다 지가 힘들어가 그런 걸 아니까 봐주기는 하는데 <중략> 원래 꼼꼼한 성격이라가, 지일은 지가 또 책임있게 그래도 잘 합니다 (L씨의 직장 동료).

④ 분노와 걱정으로 생긴 불면증

당장 쳐들어가가(베트남 처가) 확 엮어뿌고 모조리 개망신을 시켜야 되는데 말만 그렇고 하지도 내가 그걸 못합니다. <중략> 잠이 안와요. 뜯 눈으로 밤새운 게 하루 이틀이 아이지 뭐. 어제도 못 잤어요. 피곤해가 잘라 캐도 눈만 말뚱말뚱한 게 죽겠어요 나도. 잠이 들라카다가도 안돼. 몸은 피곤한데 정신은 말뚱말뚱하제. 안 겪어본 사람들은 이걸(불면증의 괴로움) 몰라요. 아(들째아이) 생각만 해도 글코. 나영(가명, 첫째아이)이도 글코, 우예야 되겠는교.

불면증을 호소하는 L씨는 간혹 공장 사무실에서 잠들기도 하는데 그런 모습이 자주 동료들에게 발견되기도 한다.

일이 들어왔는데 현장에 찾아보면 없어요. <중략> 사무실 한쪽 구석에 자고 있는 걸 깨워요. 그래도 직장인데 직원이 한 둘이도 아닌데 좀 그렇잖아요. 깨우면 밤에 못자다고 조금만 나(봐) 돌라고 그래요. 참 내, 그 놈의 여자가 뭐지. 아를 다 배리냈지 뭐. 말도 잘 안하제 잘 웃지도 안하제. 늘상 죽을 상하고 있제(L씨의 직장 동료).

(2) 심리적 증상

사람은 누구나 과중하거나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신체의 취약한 부분에 이상이 생길 뿐만 아니라 교감신경계 작용으로 심장박동수가 높아지거나 호르몬 체계에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하게 된다. 스트레스는 이러한 신체적, 생리적 증상 외에도 불안, 초조 긴장상태를 유발하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식욕저하, 불면증, 무력감, 절망감 등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이영호, 2011) L씨에게서 나타난 심리적 증상은 다음과 같다.

① 긴장이나 불안감이 느껴지는 행동증상

L씨의 면담에서 주로 발견된 행동은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는 제스처와 상대방이 느낄 정도의 빈번한 큰 한숨, 간헐적으로 보이는 왼쪽 눈 밑에서 파르르 떨리는 경련증상이다. 이야기 도중 얼굴이 붉어지거나 땀이 나지 않는데도 L씨는 얼굴을 자주 쓸어내렸고 들숨과 날숨을 크게 몰아 내쉬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또한 얼굴과 머리를 손가락으로 자주 긁는 행동과 눈 밑에서 떨리는 경련 증상을 억제하려는 듯 면담 내내 손가락으로 누르는 행동을 보였다. 프로이드(1905)는 피로나 긴장으로 인해 평정이 깨질 때, 하나의 세력이 우세해지고, 무해한 것처럼 보이는 방식을 통해 증상 행동이 방출된다고 보았다. 이 방출은 때때로 근육 경련 같은 신체적 반응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이는 심각한 정신 장애가 있음을 나타낼 수도 있고 정신병리와 상관없는 자아-동조적 표현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② 분노, 우울감, 두려움이 섞인 불안정한 감정들

불안은 불쾌한 정서를 수반하는 긴장의 상태를 느끼게 만들며 때로는 분노와 동일한 형태로 나타난다(Cohn, 1997; 김영옥, 2011 재인용).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감정은 무력감인데 이 무력감은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L씨의 진술문에서 주로 발견되는 단어는 피해상황에 제시된 기가 막힌다, 진짜 죽고 싶다, 죽을 지경, 죽이고 싶다 등의 단어 외에도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 못 죽어 사는, 날벼락 같은, 하소연 할 수 없는, 누가 알까 무서운 등을 통해 현재 L씨의 힘든 상태를 알 수 있다.

다른 놈과 같이 있는 꼬라지를 봤을 때 <중략> 당장 X로 죽이고 싶지. 지금도 그 때 생각만 하면 심장이 떨리고 <중략>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라까면 알겠는교, 죽고싶다 아인교, 못 죽어 살지 살고 싶어 살겠는교.

아 새끼조차 내 새끼가 아이(아니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교.

어무이나 식구(형제)들이 알아보이소, 내가 뭐 되는교, 빙시 쪼다 안되는교. 내가 이랄라고 결혼한 게 아인데. 기가 막히지. 이거를 어디 가서 하소연

할 수 있는교.

누가 알까 무섭구마. 인자는 알 사람은 대충 안다 아인교. 근데 아(아이)는 잘 모르는구마.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언제 퍼질지 알게 뵈교.

③ 자살을 생각함

L씨는 재혼할 때는 예측하지 않았던 이혼의 위기, 아내의 외도, 부모가 누구지도 모르는 둘째 아이의 출생의 비밀 등을 겪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누구에게도 위기적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위기적 상황은 피해 당사자의 자존감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 L씨는 운전을 하면서 ‘죽어 버릴까?’라는 생각으로 갈등한 적도 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은 하루에도 열두 번도 더 합니다. 지금도 죽을 수 있으면 죽었으면 딱 좋겠습더. 내사 운전을 자주 하이 운전하다가도 그런 생각도 몇 번 했구마. 엑세레더 짝 밟으면 이레가 마 확 밟아가 끝내까 그런 생각도 했고, <중략> 무섭다 안카면 거짓말인데, 열 받으면 아무 생각 안나누마. <중략> 아도 중요하지마는 내가 뵈 낙이 있는교.

④ 말할 곳이 없음

결혼으로 피해를 보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신들이 겪는 어려움을 말하기도 싫어하지만 말 할 곳도 없다고 한탄한다. 말하기 싫어하는 이유로는 말하고 나면 자신들을 이해하기보다는 바보, 병신으로 치부하는 주변의 시선이 두렵고, 결혼 속사정에 대해 마땅히 말 할 수 있는 곳도 없다고 한다. 혹시 부부간의 갈등이 있어 기관(1366, 사회복지과, 다문화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불쌍한 여성들에게 좀 잘해주라는 일방적인 충고뿐이어서 답답함을 말할 수 있는 대상도, 공간도 이들에게는 없다.

이런 일이 생기면 솔직히 갈 때가 있어야제.

내 일이라고는 못하고 1366에 전화를 했어요. 친구 와이프가 도박도 있고 집도 잘 나가는데 이걸 우예나 되냐고 물었디 <중략> 너무 돈도 안 주고 하이 그렇지, 집이 좋으면 나가겠나, 좀 잘해주라 그래 말을 하는데 우예 더 말이 되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요.

아이고 이런 걸 어디가가 말하는데, 병어리 가슴 앓는 거지. 나는 이러지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짜 죽겠구마. <중략> 법도 다 여자들 위주로 되었고 이런 일이 생겨도 우리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병신 취급만 받고 <중략> 그때 이후로 결정을 못 내리가 지 혼자 있구마. 아는 당분간 아 어마이가 저거 엄마 병간호 때문에 베트남 간 걸로 해가, 어무이가 키우고 안 있는교.

L씨의 답답함은 기관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도 확인된다.

우리도 그런 전화를 자주 받아요. 근데 사실 담당할 인력도 없고, 평균적으로 남자들이 문제가 많은 집이 많으니까 그래 말도 하는데, 어떨 때는 우리도 일방적으로 남자들을 몰아가는 것은 안된다고 우리도 그래요. 요즘에는 여자들(결혼이주여성)도 보통이 아입니다. 다 알고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중략> 남자가 손만 올라와도 폭력이라고 신고한다 카고, 그런 거를 어디서 다 교육받고 오는가 봐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위에서 정리한 L씨의 피해상황 및 그로 인해 나타난 신체적 심리적 반응들을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제결혼 한국남성이 결혼생활에서 경험하는 피해 상황들을 탐색해봄으로써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가 이주여성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인 남성에게도 발생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하였다. 국제결혼 남성들이 겪는 피

해 상황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은 피해자, 남성들은 가해자라는 일반적 인식이 강해 힘든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출되는 결혼이주여성과는 달리 이웃 간에 쉬쉬하는 이야기나 국제결혼의 가십거리로 치부되는 면이 있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면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주된 해체요인으로 한국남성들만 주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배우자의 의도적 행위로 인해 심리적 상처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 나아가 국제결혼을 이기적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적 접근의 필요성을 모색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단일사례로 진행되었으며 사례의 정확성을 위해 연구참여자의 동료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자의 진술을 일부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진술문을 토대로 도출된 내용은 연구참여자가 겪은 피해상황과 그로 인해 경험한 스트레스 반응 정도이다. 연구참여자의 진술에서 도출된 피해상황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의도성 가출, 혼외출산과 양육, 대가를 요구하는 잠자리, 도박, 소식이 끊은 채 이혼을 요구함 등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연구참여자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되어 음주와 흡연을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원형탈모나 피부질환, 심한 눈 떨림 현상과 같은 신체적 이상 반응, 불안감이나 두려움, 삶의 비관이나 죽음에 관한 생각을 하게 하는 불안정한 심리적 반응 등으로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개입되어야 할 실천적 및 정책적 개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실천적 개입부분이다. 첫째, 이주여성들에게서 가출이나 도박 등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초기 개입이 중요하다. 연구참여자의 경우 아내의 초기 가출시 도움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적절히 개입이 이루어졌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을 예방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문제행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 개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이주여성에게 제공되는 언어 습득의 교육을 남성에게도 확대·시행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국제결혼 부부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대부분 문화와 언어의 이질성이다. 그러나 문화적인 충돌은 언어적 이해가 따르면 해결되는 부분이므로 언

어 습득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현재 언어 습득의 교육은 암묵적으로 이주여성들에게만 강요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국제결혼을 선택한 이상 배우자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며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는 첫 단계이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이 배워서 적응하고 순응하게 하기보다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참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국제결혼 한국남성들을 배우자 모국어 습득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남성들의 자존감 향상 및 적극적인 삶의 자세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부 예절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국제결혼 한국남성들은 배우자의 나이가 어리고 우리나라보다 후진국 출신이어서인지 배우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야, 자, 그기”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용어사용은 인간의 생각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어린 배우자도 인격체로서 동등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넷째, 이혼 위기상황에 처해있거나, 이혼자들에게 다양한 심리적 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스트레스는 인간의 심리적 반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유발하거나 주의력 결핍장애, 수면 장애 등과 같이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이영호, 2011). L씨는 결혼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배우자의 잦은 외도나 혼외임신과 출산 등의 경험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정리가 되는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리적 안정이나 회복을 도와 자살과 같은 이차적 위기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심리상담 및 치료가 요구된다.

다음은 정책적 개입이다. 먼저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배우자의 가정폭력 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이 주가 되는데 반해 한국남성들은 배우자의 외도나, 혼외 자녀 출생, 한국인으로 귀화한 후 이혼을 요구하며 한국에서 본국의 남성과 재혼하는 행위가 자주 발견된다. 따라서 피해상황 등에 대한 조사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국제결혼 피해 예방 및 피해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국제결혼도 이혼의 경우에도 성별에 관계없이 유책배우자의 책임정

도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혼외 자녀출생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나 배우자의 불안정한 신분의 위치를 이용한 강제 억압 행위 및 귀화 후 이혼을 요구하는 의도적 결혼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야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제결혼 한국남성들도 배우자로 인한 피해나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 L씨는 배우자의 반복적인 일탈 행위로 이혼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마땅히 도움을 요청할 기관이 없었고 게다가 배우자가 잠적한 상태라 일방적으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교육과 현장영역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 대부분은 인력부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국제결혼 부부에게 위기상황이 발생하여도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국제결혼 부부 및 그 가족을 위한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반 인력 충원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 적절히 개입할 수 있는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가진 인력 확보가 요구된다.

2013.04.30 접수, 2013.06.17 수정, 2013.06.26 게재확정

참고문헌

- 광주광역시, 2009, 광주광역시 2008년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 김문강, 2010, 다문화가족 한국남성배우자의 피해유형에 관한 연구, 원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경, 2009, 국제결혼 남성의 부부되기에 대한 문화기술지,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179-211.
- 김보라, 2008, 국제결혼 이민실태와 이민자 여성의 한국사회 적응, 서강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오남,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 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 33-75.

- 김영옥, 2011,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생활에서 나타나는 불안에 대한 연구: 경기도 S시의 필리핀 여성들을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설동훈 외, 2005, 국제결혼 중개업체 실태와 보건, 복지지원 정책방안 발표회, 보건복지부.
- 성지혜, 1996, 중국교포여성과 한국남성간의 결혼 연구,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소라미, 2009, 이주여성을 상담하기 위한 상담원 교육자료집, 2009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원 교육자료집.
- 손은록, 2004, 국제결혼 가정의 부부갈등 요인과 갈등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인과 결혼한 조선족여성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경림·조명옥·양진향, 2004,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행정안전부, 2012, 2012년 외국인주민 현황분석.
- 양철호·김영자·손순용·양선화·신봉관·조지현, 2003, 외국인 주부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연구: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16(6), 127-149.
- 윤영주, 2001, 한국체류 중국동포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형숙, 2003,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한국의 소수자 실패와 전망, 한울.
- 이영호, 2011, 정신건강론, 공동체.
- 이영희, 2010, 국제결혼 한국남성의 결혼적응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혜경, 2009,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유형화에 관한연구, 한국가족복지학지, 25, 147-166
- 전라남도, 2006, 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복지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 전라남도, 2006, 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복지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 조흥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 2005, 질적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전통, 학지사.
- 채옥희·홍달아기, 2008, 피해사례를 통해서 본 결혼이민자남편의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17(5), 891-902.
- 최금해, 2005,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에서의 적응기 생활체험과 사회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 219-244.
- 최금해, 2007,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결혼생활 적응유형에 관한 질적연구, 여성연구, 72(10), 143-188.
- 최지영, 2009,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으로서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지, 26, 225-25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연구: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한국염, 2009, 한국 결혼이주 현실에서 살피본 인신매매성 결혼이주 방지를 위한 아시아
초국적 네트워크의 중요성,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자료실.

홍기혜, 2000,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
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Denzin, N. K., & Lincoln, Y. S., 2005,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Freud, S., 1905, Fragment of an analysis of a case of hysteria. *SE*, 7: 76-9

Guba, E., & Lincoln, Y., 1981, *Effective evaluation*, San Francisco, CA: Jossey Bass.

Merriam, S., (1988),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A qualitative approach*, San Francisco:
Jossey-Bass.

Stake, R.,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Stake, R. E., 2005, Qualitative case studies, In N.K. Denzin & Y. S. Lincoln (Eds.),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3rd ed., pp. 443-466), Thousand Oaks, CA: Sage.

Yin, R. K., 2003,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A Case Study on Korean Men's Experience to an International Marriage

Yeong-Hee Lee*

Abstract This is a qualitative case study on Korean men's experience of victimization to an international marriage by in-depth interview on the participant with deliberated sampling method. Due to difficulties in collecting cases,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a single case, but used interviews of participant's acquaintances and officials from multicultural-related institute to have substantial contents. According to the analysis, Korean men who had international marriage have experienced his spouse's extramarital affair, running away, kleptomania, child birth from extramarital affairs, and asked to divorce. Because of these experiences, he is having physical disorders and psychological anxiety. Based on the analyzed data, this study is suggesting for a damage report on international marriage, severe punishment on blameful spouse, establishing a system to intervene in the situations, and necessity of psychological support service for those divorced and in danger of getting divorced.

Keywords Korean men with international marriage, experience , a case study, psychological support service

* Corea welfare cyber college, Life environment Welfare, yh7085@hanmail.net